

## 아동기 외상과 마음이론이 스트레스 지각에 미치는 영향

The Pathway Linking Childhood Trauma and Stress Perception:  
Mediating Role of Theory of Mind

장은영\*†

Eun-young Jang\*†

\*호남대학교 상담심리학과

\*Department of Counseling Psychology, Honam University

###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the differential effects of childhood trauma, especially neglect, emotional abuse, and physical abuse on stress perception in relation to the ToM (theory of mind), among one-hundred and fifty five college students. For this purpose, self-reported childhood neglect, emotional abuse, physical abuse, and stress levels during the previous week were measured. Social cognition was measured using a ToM questionnaire which asked respondents to guess the intentions of the person in each vignette by providing additional hints. In order to examine the predicting role of childhood trauma and mediating role of ToM, two distinct structural models assuming full (Model 1) and partial (Model 2) mediational effects were compared using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The partial mediational model was supported and the main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childhood neglect indirectly predicted stress perception through the effect of the ToM. Second, childhood emotional abuse directly predicted stress perception. Third, childhood physical abuse had no distinct effect on stress perception. Finally, the limitations of this study and the implications for future studies are discussed.

**Key words:** Childhood Abuse, Childhood Neglect, Childhood Trauma, Theory of Mind & Stress Perception

### 요약

아동기 외상은 발달 과정에서 심리적 그리고 생물학적 문제를 초래하고, 이 문제들이 사회인지 발달과 공변하여 이후 스트레스 대처에 장애물로 지속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가정하였다. 이에 아동기 외상, 구체적으로 방임, 신체 학대 및 정서학대의 경험이 성인이 된 시점에서 지각하는 스트레스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마음이론이 매개역할을 하는지 알아보았다. 이를 위해 대학생 155명을 대상으로 아동기 외상 및 지난 일주일 간 지각한 스트레스 수준을 측정하는 자기보고식 척도를 실시하였다. 사회인지 능력의 하나인 마음이론을 측정하는 질문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면담자가 힌트를 제공하는 구조화된 방식으로 측정하였다. 최종 15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공변량구조분석을 통하여 마음이론의 완전매개 효과를 가정한 모형(모형 1)과 부분매개 효과를 가정한 모형(모형

※ 이 연구는 호남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 지원으로 이루어졌음(2016).

† 교신저자 : 장은영 (호남대학교 상담심리학과)

E-mail : jangmean@hanmail.net

TEL : 042-604-1096

FAX : 042-868-5455

2)의 간명성과 부합도를 비교하였다. 완전 매개효과 모형을 보면, 마음이론이 스트레스 지각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가 유의하였고, 아동기 방임이 마음이론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가 유의하였다. 아동기 정서학대가 마음이론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는 경향성만 나타내었고, 아동기 신체학대가 마음이론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는 유의하지 않았다, 부분 매개 효과 모형을 보면, 아동기에 경험한 방임은 마음이론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다시 스트레스 지각에 영향을 미쳤다. 아동기에 경험한 정서학대는 성인기의 스트레스 지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상관분석 및 완전, 부분 매개 효과 모형에서 모두 아동기의 세 가지 유형의 외상 경험은 유의한 상호상관관계를 보였다. 모형의 간명성과 부합도를 비교한 결과에서는 최종적으로 부분 매개효과 모형이 채택되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의의와 제한점,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논의하였다.

**주제어: 아동기 학대, 아동기 방임, 아동기 외상, 마음이론, 스트레스 지각**

## 1. 서론

외상(trauma)이란 정신적 충격으로, 심리학의 영역에서는 주로 정신적인 상처나 충격을 의미한다. 그리고 아동기 외상은 아동 혹은 청소년이 외상성 사건이나 상황에 노출되었고, 그 경험이 자신의 대처능력을 넘어선 것을 의미한다(Gunnar & Quevedo, 2007). 외상 경험이 아동기에 발생한 경우에 다양한 부정적 결과가 초래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동기 외상은 심리장애를 유발하거나 혹은 발병의 위험성을 높이는 요인이다(Ortigo et al., 2013). 구체적으로 정서조절의 문제를 초래하여(Shipman et al., 2000) 우울증, 양극성 장애, 경계선 성격장애, 섭식장애, 물질사용장애의 위험을 높인다(Berking & Wupperman, 2012). 다양한 부정적 자기도식 혹은 자기비난을 생성하여 우울증을 초래하거나(Sachs-Ericsson et al., 2006), 외상후스트레스 증상을 심화시킨다(Ullman & Phillipas, 2005). 이와 같이 아동기 외상의 효과는 성인기까지 이어지며 다양한 부정적 결과를 초래하는데, 본 연구는 이 가운데 스트레스원(stressor)에 대처한 결과로 나타나는 스트레스 지각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에 더하여 아동기 외상과 스트레스 지각을 연결하는 다양한 경로 가운데 사회인지, 구체적으로 마음이론의 매개 역할을 탐색하고자 한다.

### 1.1. 아동기 외상이 스트레스에 미치는 효과

Harrington(2016)은 스트레스란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다양한 원인들에 대한 결과라고 정의한 바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스트레스를 ‘스트레스원에 대처한 결과이며, 한 개인이 지각한 스트레스 수준은 다양한 원인들에 직면하여 가용한 대처자원을 활용하여 반응한 결과’라고 정의하였다.

그렇다면 아동기 외상은 성인기의 심리사회적 스트레스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아동기 외상과 스트레스 수준을 연결하는 가능한 통로는 여러 경험연구들을 통해 다양하게 제안되어 왔다. 첫째, HPA 축(Hypothalamus-Pituitary-adrenal axis)의 기능이다. 뇌발달이 이루어지는 동안 경험한 아동기 외상은 과도한 코티코스테로이드 방출을 유발하고, 이는 HPA 축의 항상성을 저해한다(Suzuki et al., 2014). 잘 알려진 바와 같이 HPA 축은 스트레스원에 직면하여 작동하는 주요 기체로서 코티솔의 방출 등과 관련되며 성공적인 스트레스 대처에 필요하다. 따라서 아동기 외상은 성인기의 심리사회적 스트레스원에 성공적으로 대처하는 데 어려움을 초래하여 결과적으로 스트레스 지각 수준을 높일 수 있다. 둘째, 아동기 외상은 정서조절의 어려움이나 신경증을 높인다(Shipman et al., 2000). 정서조절의 어려움은 생활사적 사건이나 심리사회적 스트레스에 대처할 자원을 상쇄할 수 있다. 셋째, 아동기 외상은 행동과 보상의 연합을 처리하는 능력의 발달에 장애가 되는 점도 발견되었다(Dillon et al., 2009). 보상 반응성(reward responsiveness)은 원하는 것에 접근하려는 경향이며, 행동과 보상의 연합을 처리하는 능력을 의미하는데, 아동기 외상이 이와 같은 능력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점이 제안된 바 있다. 특정한 행동이 어떠한 보상을 얻을 수 있는지 학습하지 못하면, 스트레스에 대처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어떠한 행동을 해야 하는지 전략을 설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된다.

본 연구는 아동기 외상과 스트레스 지각을 연결하는 가능한 연결통로로써 마음이론의 역할을 알아보고자 한다. 마음이론은 사회적 장면에서 여러 단서를 기민하게 파악하고, 타인의 감정, 의도, 행동의 원인 등을 적절히 해석하는 능력을 포함한다. 아동기 외상은 이와 같은 마음이론의 발달을 저해하고, 이는 다시 스트레스 대처에 어려움을 초래하여 스트레스 수준을 높일 수 있다고 가정하였다.

### 1.2. 아동기 외상이 마음이론에 미치는 효과

일반적으로 사회인지란 사회적 정보를 지각, 해석, 처리하는 능력을 말한다(Ostrum, 1984). 사회인지능력은 ‘사회적 상호작용에 내재한 심적 작동(mental operation)을 의미하며, 타인의 의도, 성격, 행동을 지각하고 해석하며 그에 상응하는 반응을 이끌어내는 것을 포함한다’고 알려져 있다(Green et al., 2008). 임상 분야에서 ‘사회인지’(social cognition)란 타인의 의도나 생각을 추론할 수 있는 능력으로 자신과 타인을 포함한 상황 및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수반되는 인지적인 과정(cognitive process)을 포함한다(Penn et al., 1997).

사회인지의 개념 정립 및 그 효과에 대한 연구는 조현병 환자 치료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 조현병의 여러 증상을 치료하는 것과 독립적으로, 조현병이 초래하는 기능의 저하를 해결하는 데 전문가들의 관심이 높았다. 초기 연구들은 조현병으로 인한 기능의 저하는 주로 정보처리능력, 실행능력 등의 인지능력의 저하에 기인한다고 보았다(Penn et al., 1997). 이후 조현병의 기능적 결과는 인지능력의 손상에 의해 전적으로 설명될 수 없으며, 일부는 사회인지에 의해 설명된다는 주장이 대두되었다(Fett et al., 2011). 최근에는 조현병을 넘어서서 범발달장애 및 정신증을 지닌 사람들이 사회인지의 저하를 보이는 점이 발견되었다(Glenthøj et al., 2016). 또한 DSM-5에 근거하여 성격장애의 차원별 심각도 점수를 측정하고 이를 사회인지검사 점수(Reading the Mind in the Eyes Test and Movie for the Assessment)와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에서 이들의 유의한 관련성이 확인되었다

(Fossati et al., 2017).

사회인지의 대표적 위험요인으로 아동기 외상 혹은 아동기 부정적 사건(adversity)이 꼽힌다. 즉, 특정한 시기의 학대나 방임으로 인해 사회인지 능력의 결함이 나타난다는 것인데, 아동기 외상적 사건들은 한 개인이 장래 대인관계의 해석이나 기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제안된 바 있다(Palmier-Claus et al., 2016). 사회인지의 세부 영역 가운데서도 마음이론 능력에 초점을 두고 아동기 외상과 사회인지의 관계를 검증한 선행연구에서는 아동기 방임 혹은 양육의 박탈은 마음이론 능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점이 나타났다(Colvert et al., 2008).

따라서 아동기 외상은 사회적 장면에서 단서를 지각하고 적절히 처리하는 능력의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아동기 외상이 사회인지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그 기제는 현재까지 불명확하지만, 아동기 외상은 TPJ 혹은 mPFC의 발달(Muscattell & Eisenberger, 2012; van Overwalle, 2009), 애착형성(Picken et al., 2010), 사회적 정보처리 능력(Palmier-Claus et al., 2016)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서 마음이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제안되어 왔다.

### 1.3. 마음이론이 스트레스 지각에 미치는 효과

사회인지 능력 혹은 마음이론과 스트레스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검증하거나 탐색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다만, 사회인지 능력이 유발하는 효과를 검토하여 이들의 관계를 추론할 수 있다. 먼저 경계선 성격장애군, C군 성격장애군 및 정상군을 대상으로 스트레스가 유발되는 상황을 조성하고, 이들의 사회인지 및 스트레스 반응을 측정하는 연구가 있다(Decker et al., 2015). 사회인지 능력은 얼굴표정에서 정서를 얼마나 정확하게 인식하는지 그리고 타인의 행동을 얼마나 부정적으로 해석하는지를 통해 측정하였다. 그 결과를 보면, 정상군을 포함하여 세 가지 군 모두에서 스트레스 유발 이후에 타인의 행동에 대해 더욱 부정적으로 해석하였고, 정서인식이 더욱 부정확하였으며 집단간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이는 성격장애를 겪는 사람들만 아니라 정상인들의

스트레스 지각이 사회인지와 관련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에 본 연구는 스트레스 지각에 사회인지의 하나인 마음이론이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하였다. 마음이론이 빈약한 사람들은 타인의 긍정적 반응을 적절히 지각하거나 해석해내지 못할 수 있다. 또한 주관적 고통을 유발할 단서를 회피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타인의 의도를 잘못 해석하거나 타인의 감정이나 관점을 파악하지 못하여 맥락에 부합하지 않는 반응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이는 결과적으로 스트레스 대처자원을 감소시키거나 스트레스를 높은 수준으로 지각하게 할 것이다.

## 2. 연구 가설

아동기 외상과 스트레스 지각을 연결하는 통로 가운데 마음이론이 매개 기능을 수행하는 통로의 가능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아동기 뇌발달이 이루어지는 동안 경험한 아동기 외상은 상당한 스트레스 요인으로써 뇌발달에 장애를 일으키는데 사회인지의 발달 및 스트레스 대처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HPA 축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한다(Sanchez et al., 2015; Suzuki et al., 2014). 또한 아동기 외상은 정서조절능력(Shipman et al., 2000), 사회적 정보처리 능력(Palmier-Claus et al., 2016)의 발달을 저해하는데, 정서를 인식하는 능력과 타인의 감정이나 의도를 파악하는 능력은 사회인지의 하위 요소들이며, 일상의 스트레스를 이해하고 대처하는 데 필요한 능력들이다. 따라서 아동기 외상은 발달 과정에서 심리적 그리고 생물학적 문제를 초래하고, 이 문제들을 사회인지 발달과 공변하여 이후 스트레스 대처에 장애물로 지속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아동기 외상을 방임, 신체학대 및 정서학대로 구분하여 측정하고 이들의 효과가 마음이론을 통해 스트레스 지각으로 이행하는 모형(모형 1)을 설정하였다. 다만, 아동기 외상이 스트레스 지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직접 경로를 추가한 모형을 경쟁모형(모형 2)으로 설정하여, 두 모형을 비교하였다. 연구 모형은 Fig. 1에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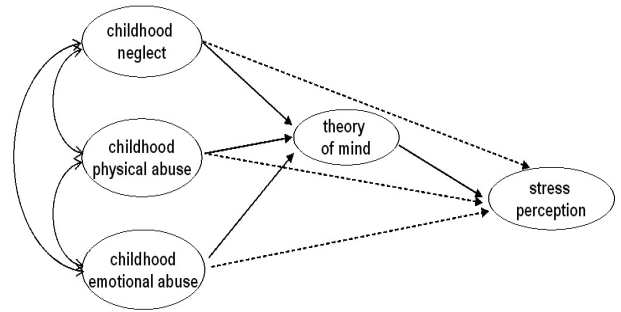


Fig. 1. Hypothesized model Solid line represents the paths of Model 1 and dotted line represents the paths of Model 2

## 3. 연구 방법

### 3.1. 참가자

본 연구는 광역시 소재 사립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대학의 전공 및 교양 시간을 할애하여 본 연구의 목적에 대해 간략히 설명한 후 참가의사가 있는 학생들은 정해진 시간에 학과의 개인상담실을 방문하도록 하였다. 개인상담실을 방문하면 연구의 가설을 알지 못하는 심리학과 대학원생이 참가동의를 얻고 질문지를 실시하였다. 참가자들은 대부분의 문항들을 독립적으로 개인상담실에서 읽고 직접 답을 표시하였다. 다만, 사회인지를 알아보기 위해 마음이론 능력을 측정하는 문항들은 도구의 특성상 대학원생이 실시하고 응답을 기록하였다.

총 155명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하였고, 공변량구조분석의 listwise 방법으로 인해 최종 151명의 응답이 분석되었다. 연구대상은 남학생 65명(43.0%), 여학생 86명(57.0%)으로 구성되었으며, 평균연령은 20.50(SD = 3.73)세이었다. 성별간 유의한 평균연령의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t = .28, df = 149, p = .763$ )<sup>1)</sup>.

### 3.2.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호남대학교 기관윤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승인을 받았다. 조사를 실시한 대학원

1) 기관연구윤리위원회(IRB)의 권고에 의해 학생들의 소속학과를 수집하지 않았음.



생이 연구의 목적과 절차를 모든 조사대상자들에게 설명하였으며, 자발적으로 참가 동의를 얻었고 불편하다고 느낄 때에는 설문 작성을 중단할 수 있게 하였다. 개인정보의 비밀보장을 위해 각 설문지마다 이름을 삭제하였고 모든 자료에 대한 접근을 연구자로 제한하였다.

### 3.3. 변인과 측정치

**아동기 방임** : 아동기 학대와 방임을 측정하기 위해서 Kim(2008)의 아동기 외상 질문지의 방임(neglect) 소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7개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참가자들은 5점 척도('1' = '전혀 없음', '5' = '한 달에 한 번 이상')에 응답하였다. 기술통계치를 산출하는 경우 7개 문항에 응답한 값을 평균하였다. 평균값이 높을수록 적절한 혹은 최소한의 양육이나 지원을 아동기에 제공받지 못함을 의미한다고 해석한다. 본 연구의 표집에서 얻은 내적 일치도(Cronbach's  $\alpha$ )는 .77이었으며, 공변량구조분석을 위해 7문항으로 세 개의 덩이(parcel)로 만들어서 측정변수로 사용하였다.

**아동기 신체학대** : Kim(2008)의 아동기 외상 질문지의 신체학대(physical abuse) 소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7개 문항으로 참가자들은 5점 척도('1' = '전혀 없음', '5' = '한 달에 한 번 이상')에 응답하였으며, 기술통계치를 산출하는 경우 7개 문항에 응답한 값을 평균하였다. 평균값이 높을수록 아동기에 신체적인 폭력이나 위협에 노출되었거나 직접 경험하였음을 의미한다고 해석한다. 본 연구의 표집에서 얻은 내적 일치도(Cronbach's  $\alpha$ )는 .89이었으며, 공변량구조분석을 위해 7문항으로 세 개의 덩이(parcel)로 만들어서 측정변수로 사용하였다.

**아동기 정서학대** : Kim(2008)의 아동기 외상 질문지의 정서학대(physical abuse) 소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7개 문항으로 참가자들은 5점 척도('1' = '전혀 없음', '5' = '한 달에 한 번 이상')에 응답하였으며, 기술통계치를 산출하는 경우 7개 문항에 응답한 값을 평균하였다. 평균값이 높을수록 아동기에 언어를 포함한 방법을 통해 정서적인 고통이나 위협 혹은 정서적 방임을 경험하였음을 의미한다고 해석한다. 본 연구의 표집에서 얻은 내적 일치도(Cronbach's  $\alpha$ )

는 .84이었으며, 공변량구조분석을 위해 7문항으로 세 개의 덩이(parcel)로 만들어서 측정변수로 사용하였다.

**마음이론** : 사회인지 수준을 마음이론으로 측정하였다. 이 능력은 이야기 과제의 세트 B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Song & Shin, 2011). 이야기 과제는 본래 두 세트로 구성된다. 첫 번째 세트 A는 어떠한 사회적 상황을 기술한 내용을 읽도록 한 후 앞선 이야기를 기억하는지 묻는 질문(현실 질문)으로 구성된다. 맞으면 1점, 틀리면 2점을 부여한다. 다만 이는 조현병을 앓는 사람들에게는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나 대학생들에게는 변별력이 낮고, 참여동기를 저하시킬 우려가 있어 실시하지 않았다.

두 번째 세트 B는 이야기에 대한 주인공의 의도를 질문(마음이론 질문)하는 문항들로 구성된다. 이 때 맞으면 2점, 틀리면 0점을 받는다. 그리고 틀린 경우에 힌트를 제공하여 다시 묻고 이 때 맞으면 1점을 부여한다.<sup>2)</sup> 이 힌트까지 제공한 조건에서의 각 질문에서 획득한 점수를 10개 문항에서 모두 합하게 된다. 이론적으로 가능한 총점은 0점에서 20점이며, 본 연구에 참가한 학생들의 점수 범위는 7점에서 20점이었다. 최빈값은 17점(30명, 19.9%)이었고, 7점이 1명, 8점이 2명, 20점이 15명이었다. 마음이론, 즉 의도추론 능력을 나타내는 점수를 측정변수로 공변량구조분석에 사용하였다.

**스트레스 지각** : Ko, Park 및 Kim(2000)에 의해 표준화된 전반적 스트레스 평가척도(Global Assessment of Recent Stress Scale, GARS)로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최근 일주일 동안 '일/직장/학교생활, 대인관계, 관계의 변화, 질병 및 상해, 경제적 문제, 비일상적인 사건, 일상생활의 변화유무 등'을 포함하여 전반적인 스트레스 지각 수준을 평가한다고 알려져 있다. 8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참가자들은 각 문항에 대해 10점 척도('0' = '전혀 없음', '9' = '한 달에 한 번 이상')로 응답하였고, 기술통계치를 산출하는 경우 8개

2) 문항의 일례는 다음과 같다. 「수철과 영란은 1주일 전에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했다. 영란은 이삿짐 중 유리그릇을 풀고 있었다. 수철은 쇼파에서 TV를 보고 있었다. 영란이 수철에게 말하였다. '수철아 이삿짐 속에 선반 좀 꺼내줄래?'와 같은 이야기를 들려준다. 그리고 나서 '영란의 의도는 무엇 일까요?'라고 질문한다.

문항에 응답한 값을 합산하였다. 이에 이론적으로 가능한 총점은 0점에서 72점이며, 값이 높을수록 한 달 여 동안 주관적으로 지각한 스트레스 수준이 높다고 해석한다. 본 연구의 표집에서 얻은 내적 일치도 (Cronbach's  $\alpha$ )는 .77이었으며, 공변량구조분석을 위해 8문항으로 세 개의 덩이(parcel)로 만들어서 측정변수로 사용하였다.

### 3.4. 분석 방법

아동기 방임, 신체학대 및 정서학대가 마음이론을 거쳐서 스트레스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Lisrel 8.54판을 이용하여 공분산행렬과 최대우도법을 사용한 공변량구조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음이론을 나타내는 점수는 관찰문항별로 분할할 수 없어 측정값을 공변량구조분석에 사용하였다. 이에 나머지 아동기 외상과 스트레스 수준을 측정하는 관찰변수의 비중을 유사하게 만들기 위하여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각 잠재변수별로 3개의 덩이(parcel)들을 구성하여 공분산행렬을 추정하는데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비교하여 검증하는 모형은 두 가지로써, 첫 번째 모형에서는 방임, 신체학대 및 정서학대가 마음이론을 거쳐서 스트레스 수준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로만 가정되었다. 즉, 마음이론이 완전매개 효과를 미친다고 가정하였다. 두 번째 모형에서는 마음이론의 부분매개 효과를 가정하였다. 이에 아동기 방임, 신체학대 혹은 정서학대가 마음이론을

거치지 않고 스트레스 수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자유화하여, 유의한 경로를 탐색적으로 알아보았다. 완전매개 모형에 비해 부분매개 모형에서 자유도가 감소하는 정도를 상쇄할 정도로 카이값이 감소하는지 확인하여 모형을 경쟁 및 비교하였다.

추가적으로 각 변인들의 기술통계치를 구하고, 측정하고자 의도한 관찰변인들의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해서 내적일치도계수(Cronbach'  $\alpha$ )를 구하였으며, 각 변인들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해서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분석에는 SPSS 18.3판을 사용하였다.

## 4. 연구 결과

### 4.1. 기술 통계치

스트레스 지각 및 이와 관련되리라고 가정된 변인들의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범위 및 상관계수는 Table 1에 제시되어 있다. 평균값부터 살펴보면, 스트레스 수준은 72점 만점에서 20.27점( $SD = 10.54$ )으로 가능한 점수의 범위에서 다소 낮은 편이었다. 마음이론은 20점 만점에서 16.31( $SD = 2.69$ )로 중간보다 다소 높은 수준이다. 아동기 방임은  $M = 2.15$ ( $SD = .68$ ), 아동기 신체학대는  $M = 1.35$ ( $SD = .54$ ), 아동기 정서학대는  $1.43$ ( $SD = .69$ )로 전반적으로 상당히 낮은 수준에 해당한다.

스트레스 수준과 나머지 변인들의 상관을 살펴보면

Table 1. Means, SDs and correlational coefficients between latent variables

(n=151)

	1	2	3	4	5
1 stress perception	1.00				
2 theory of mind	-.23**	1.00			
3 childhood neglect	.48***	-.26**	1.00		
4 childhood physical abuse	.33***	-.23**	.33***	1.00	
5 childhood emotional abuse	.47***	-.31***	.44***	.71***	1.00
Mean	20.27	16.31	2.15	1.35	1.43
(SD)	(10.54)	(2.69)	(.68)	(.54)	(.69)
Skewness	.78	-1.00	.71	1.99	1.91
Kurtosis	2.94	4.21	3.22	4.03	4.87
Range	0.00-52.00	7.00-20.00	1.00-4.29	1.00-5.00	1.00-5.00

\* $p < .05$ , \*\* $p < .01$ , \*\*\* $p < .001$

다음과 같다. 마음이론 수준이 높을수록 스트레스 수준이 낮았다,  $r = -.23, p < .01$ . 또한 아동기 방임 경험이 많을수록,  $r = .48, p < .001$ , 신체적 학대 경험이 많을수록,  $r = .33, p < .001$ , 정서적 학대 경험이 많을수록,  $r = .47, p < .001$ , 스트레스 수준이 높았다. 유사하게 아동기 방임 경험이 많을수록,  $r = -.26, p < .01$ , 신체적 학대 경험이 많을수록,  $r = -.23, p < .01$ , 정서적 학대 경험이 많을수록,  $r = -.31, p < .001$ , 마음이론 수준이 낮았다.

아동기 외상 경험간 상호상관도 유의하였다. 정서학대와 신체학대 간 상관이 높은 수준이었고,  $r = .71, p < .001$ , 방임과 신체학대,  $r = .33, p < .01$ , 방임과 정서학대,  $r = .44, p < .001$ , 중간 혹은 그 이하 수준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4.2. 측정모형의 검증

본 연구에서 사용된 관찰변수들이 가정된 잠재변인에 부하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최대우도법을 사용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측정모형의 부합도 지수는 전반적으로 양호하였다,  $\chi^2(df = 54, N = 151) = 71.67, p = 0.054; RMSEA = .047; GFI = .93, CFI = .99, NFI = .96, NNFI = .97$ . 모든 요인부하량은 .30 이상으로 유의하였다. 따라서 측정모형을 그대로 유지하고 본 연구에서 가정한 두 가지 구조모형을 비교하였다.

4.3. 구조모형의 검증

**완전매개 효과모형 검증** : 본 연구에서 가정한 경로의 계수가 최대우도법을 사용한 공변량구조분석을 통해서 추정되었다. 아동기 방임, 신체학대, 정서학대는 외현변인들(exogenous variables)이었다. 잠재변인들(endogenous variables)은 마음이론과 스트레스 지각이었다. 그리고 앞서 기술한대로 마음이론의 완전매개 효과가 먼저 가정되어 검증되었다(모형 1). 가정된 모형의 부합도는 양호한 편이었다,  $\chi^2(60, N = 151) = 133.82, p < .001; RMSEA = .09; GFI = .88, CFI = .95, NFI = .92, NNFI = .93$ . 마음이론의 15%, 스트레스 지각의 6%가 본 연구의 변인들에 의해서 설명되었다. 구조모형의 경로계수는 Fig. 2에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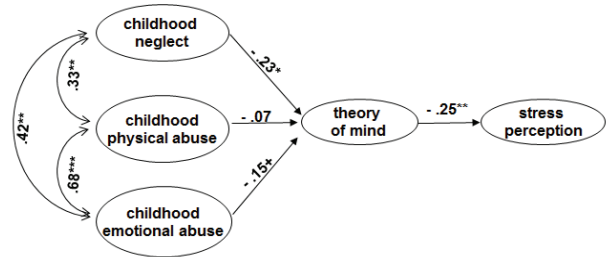


Fig. 2. Structural model hypothesized full mediational role of ToM  
+  $p < .10, *p < .05, **p < .01, ***p < .001$

경로계수를 보면, 마음이론이 스트레스 지각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가 유의하였다,  $\beta = -.25, t = -2.68, p < .01$ . 아동기 방임이 마음이론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가 유의하였고,  $\beta = -.23, t = -2.00, p < .05$ , 아동기 정서학대가 마음이론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는 경향성만 나타내었다,  $\beta = -.15, t = -1.68, p < .10$ . 반면에 아동기 신체학대가 마음이론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는 유의하지 않았다,  $\beta = -.07, t = -.43$ . 부가하여 외현변인들간 상호상관을 모두 가정하였다. 그 결과에서 앞선 영차 상관관계와 일관되게 아동기의 세 가지 유형의 외상 경험은 두 유의한 상호상관관계를 보였다; 방임과 신체학대,  $\beta = .33, t = 2.81, p < .01$ , 방임과 정서학대,  $\beta = .42, t = 3.44, p < .01$ , 신체학대와 정서학대,  $\beta = .68, t = 5.88, p < .001$ .

**부분매개 효과모형 검증** : 모형 2는 아동기 외상 경험이 스트레스 지각 수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추가한 것이다. 직접적 경로를 탐색적으로 알아보기 위하여, 세 가지 유형의 아동기 외상이 스트레스 지각에 직접 경로를 각각 검토하여 유의한 효과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 아동기 정서학대가 스트레스 수준에 미치는 직접효과가 유의하였다. 이 직접 경로가 추가된 모형의 부합도도 양호한 편이었다,  $\chi^2(59, N = 151) = 105.35, p < .001; RMSEA = .07; GFI = .90, CFI = .97, NFI = .94, NNFI = .96$ . 마음이론의 15%, 스트레스 지각의 36%가 본 연구의 변인들에 의해서 설명되었다. 구조모형의 경로계수는 Fig. 3에 제시하였다.

경로계수를 보면, 마음이론이 스트레스 지각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가 유의하였다,  $\beta = -.20, t = -2.06, p < .05$ . 아동기 방임이 마음이론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가 유의하였으나,  $\beta = -.18, t = -2.01, p < .05$ , 아동기 정서학대가 마음이론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및 아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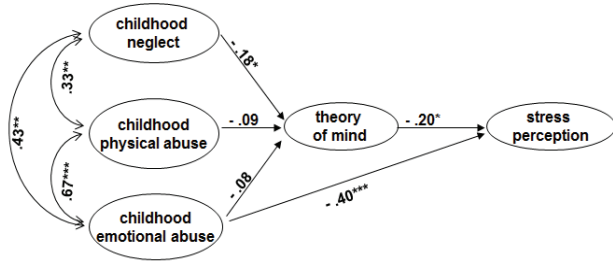


Fig. 3. Structural model hypothesized partial mediational role of ToM  
\* $p < .05$ , \*\* $p < .01$ , \*\*\* $p < .001$

기 신체학대가 마음이론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는 유의하지 않았다,  $\beta = -.09, t = -.53, \beta = -.08, t = -.40$ . 반면에 직접 경로인 아동기 정서학대가 스트레스 지각에 미치는 경로가 유의하였다,  $\beta = -.40, t = -4.94, p < .001$ , 모형 1과 동일하게 아동기의 세 가지 유형의 외상 경험도 모두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방임과 신체학대,  $\beta = .33, t = 2.49, p < .01$ , 방임과 정서학대,  $\beta = .43, t = 3.53, p < .01$ , 신체학대와 정서학대,  $\beta = .67, t = 5.85, p < .001$ .

**적합도 및 간명도 비교** : 완전매개 효과를 가정한 모형 1과 부분매개 효과를 가정한 모형 2를 비교했을 때, 모형 2에서 부합도 지수들이 다소 향상되는 점을 알 수 있다. 모형 2에서 하나의 경로가 추가로 자유화 되었으므로 자유도가 '1'인 상태에서 카이승분값을 검증하였는데, 이는 유의하였다,  $\Delta\chi^2 = 28.47(df = 1), p < .001$ . 또한 각종 부합도 지수들도 향상되었다. 모형 1과 모형 2의 적합도 및 간명도를 평가하기 위해 고려한 각 지표값들은 Table 2에 제시하였다.

두 모형 중에서 부분매개 효과를 가정한 모형 2가 지지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모형 2를 최종 모형으로 선택하였다. 즉, 아동기 방임 경험은 마음이론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다시 스트레스 지각 수준에 영향을 미친다. 아동기 정서학대는 마음이론을 거치지 않고, 스트레스 지각 수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아동기 신체학대는 마음이론 및 스트레스 지각과 유의하게 관련되지 않는다. 최종 모형의 각 경로에 대한 표준화된 총효과, 직접효과 및 간접효과는 Table 3에 제시하였다.

### 5. 결론 및 논의

아동기에 경험한 방임, 정서적 학대 및 신체적 학대가 마음이론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다시 스트레스 지각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았다. 그리고 아동기 외상 경험이 스트레스 지각에 직접 및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탐색하였다. 그 결과를 보면, 아동기에 겪은 방임과 정서적 학대 경험이 스트레스 지각에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유형의 외상 가운데 방임은 마음이론을 거쳐 간접적으로, 정서학대는 직접적으로 스트레스 지각에 영향을 미쳤다.

아동기 외상의 세부 유형이 정신병리, 심리장애의 발병 및 심각도, 인지적 발달, 사회적 적응 등에 차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본 선행연구들의 결과는 명확하지 않다. 즉, 연구에 따라 유의한 효과를 보인 아동기 외상의 세부 유형이 일관되지 않았다. 다만,

Table 2. The parsimonious and goodness of fit of structural models

Model	$\chi^2/df$	df	$\chi^2/df$	GFI	CFI	NFI	NNFI	RMSEA
Model 1(full mediation)	133.82	60	2.23	.88	.95	.92	.93	.09
Model 2(partial mediation)	105.35	59	1.79	.90	.97	.94	.96	.07

Table 3. Total, direct, and indirect effects of final model(Model 2, partial mediation)

경로	total effect	direct effect	indirect effect
childhood neglect → theory of mind	.18	.18	-
childhood physical abuse → theory of mind	.09	.09	-
childhood emotional abuse → theory of mind	.08	.08	-
theory of mind → stress perception	.20	.20	-
childhood neglect → stress perception	.12	-	.12
childhood physical abuse → stress perception	.08	-	.01
childhood emotional abuse → stress perception	.40	.38	.02



이는 선행연구들에서 다른 아동기 외상의 유형이 달랐고, 아동기 외상을 측정하는 데 사용한 도구가 달랐으며, 연구대상이나 표집이 달랐던 점에 기인한다. 본 연구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들이 아동기에 겪은 외상을 방임, 정서학대, 신체학대로 구분하여 측정하였으며, 아동기 외상의 유형간 공변량이 높은 점에 근거하여 구조방정식모형으로 효과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에서 얻어진 아동기 외상의 효과를 검증한 결과를 요약하면, 사회적 장면에서 속하여 기능을 수행하는 대학생의 스트레스 수준에 아동기에 경험한 방임과 정서적 학대가 영향을 미친다. 반면에 신체적 학대 경험은 스트레스 수준과 유의한 영차상관은 보였으나, 방임이나 정서적 학대의 영향보다는 미약하였다. 건강한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서도 본 연구 결과와 일관되게 정서학대와 방임이 초기 성인기에 스트레스원에 반응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점이 나타난 바 있다(Weltz et al., 2016).

아동기 신체적 학대도 마음이론과 유의한 영차상관을 보였지만,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에서는 아동기 방임만이 유의한 효과를 나타내었다. 아동기 외상 가운데 방임이 강건한 효과를 드러낸 이유는 무엇일까? 이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신체적 학대 및 정서적 학대와 방임의 개념적 그리고 통계적 특징을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첫째, 개념적으로 방임은 학대에 비해 방치, 부적절한 양육, 보상의 결핍 등 다양한 내용을 의미하게 된다. 이로 인해 학대에 비해 학업적 성취나 인지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소들을 폭넓게 내포하게 된다. 둘째, 통계적으로 학대에 비해 방임은 평균값이나 빈도가 높으며, 이는 본 연구에서도 확인된다. 이러한 방임의 통계분포의 특징은 공변량을 증가시켜 다변량분석에서 다른 변수와의 관련성이 충분히 지지될 가능성을 높인다. 본 연구 및 학업수행이나 지능과 아동기 외상의 관련성을 알아본 선행연구(Salzinger et al., 1984; Wolfe & Mosk, 1983)에서도 방임 요소가 인지기능과 가장 강한 연합 강도를 보였던 점은 이에 기인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결과들은 마음이론을 포함한 사회인지의 본질에 대해서 부분적인 함의를 제공한다. 즉, 다양한 아동기 외상 가운데 방임이 인지능력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점이 발견된 바 있는데(Pears & Fisher, 2005),

이는 사회인지를 발달과정을 거치는 인지능력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관점을 지지한다. 물론 사회인지가 일반인지와 구분되는지 그리고 독립적이고 차별적인 개념으로 다루어질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하지만, Kwon et al.(2003)은 일반적 자극과 달리 사회적 자극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더 많은 정보를 활용하여야 하고, 개인의 상황과 정서상태가 영향을 미치며, 일반인지능력은 사회인지능력의 충분조건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연구자들은 사회인지를 마음이론(theory of mind), 귀인 양식(attribitional style), 얼굴 정동 지각(facial affect perception) 등 크게 세 가지의 영역으로 평가하여 왔다(Song & Shin, 2010). 조현병 혹은 정신증을 앓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 세 가지 세부 영역 가운데 어떤 것이 가장 큰 손상을 드러내는지 알아본 선행연구를 보면, 그 결과가 비일관된다. 연구에 따라 가장 큰 효과크기를 보인 요소로 마음이론이, 혹은 귀인양식이나 얼굴 정동 지각이 꼽혔다(Glenthøj et al., 2006). 선행연구들이 주로 조현병, 정신증, 범발달장애를 겪는 사람들을 표집으로 구성하여 이루어졌다는 점을 고려하면, 본 연구의 표집인 대학생들에게 어떤 영역을 측정하는 것이 타당할지 판단하기 용이하지 않았다. 이에 선행연구를 통해 국내 정상인 표집을 대상으로 신뢰도를 확인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즉, 마음이론의 이야기 과제를 사용하여 타인의 의도를 추론하는 능력의 효과를 검증하였다. 사회인지 개념이 조현병을 앓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발전하여 왔고, 이후로도 다양한 심리장애를 앓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 효과가 검증되어 왔지만 비임상집단을 대상으로 사회인지의 효과가 검증된 연구가 드물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시사점을 지닌다.

아동기 외상에서 사회인지를 거쳐 스트레스 지각까지 연결하는 생물학적 기제를 HPA 축으로 가정하였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HPA 축의 반응성은 다양한 스트레스 관련 질병 및 심리장애의 취약성의 중요한 표식으로 알려져 있다(Carpenter et al., 2009); 뇌발달이 이루어지는 동안 경험한 아동기 외상은 극심한 스트레스 요인으로써, HPA 축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한다(Suzuki et al., 2014); 심리사회적 스트레스원은 아동기 외상을 겪은 성인에게서 ACTH(adrenocorticotropic) 및 코티솔 반응을 급격히 상승시킨다(Heim et al., 2002;

Heim et al., 2008). 뇌발달 연구를 보면, TPJ(temporo-parietal junction), mPFC(medial prefrontal cortex)와 더불어 HPA 축(Hypothalamus-Pituitary-adrenal axis)도 사회인지능력과 관련된다. 그러나 비일관되는 연구들도 보고된 바 있으므로(Carperter et al., 2007; Heim et al., 2000), 향후 아동기 외상이 사회인지를 거쳐 스트레스 지각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HPA 축의 정상성 혹은 반응성을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결과를 통해 얻은 시사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방법론적으로 단점을 지니며, 결과의 일반화에도 제약이 있다. 이에 본 연구의 한계점과 향후 과제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기 외상의 유형을 확장하여 상대적 영향력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아동기 외상을 방임, 정서적 학대 및 신체적 학대의 세 유형으로 분류하여 측정하고 그 효과를 검증하였다. 이는 측정도구의 표준화 및 저작권을 고려하여 결정된 바이지만, 본 연구에서 다른 요소 이외의 정서적 방임 및 성적 학대의 효과를 확인할 수 없었다. 따라서 이를 모두 포함하는 신뢰롭고 타당한 표준화 도구를 사용하여 본 연구의 결과를 반복검증할 필요가 있다. 또한 아동기 외상이 자기보고 방식으로 측정되었다는 점도 본 연구의 결과를 해석할 때 주의할 부분이다.

둘째, 표집의 수 200보다 작아서 공변량구조분석을 실시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다만, Bentler & Chou(1987)는 추정할 미지수의 약 5배 이상의 표집 수를 제안한 바 있다. 본 연구는 가장 최소한의 기준만 만족시켰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표집의 수를 확대하여 본 연구의 결과를 재검증할 필요가 있다.

셋째, 사회인지를 측정하는 도구를 추가하고 수정하여 사용할 필요가 있다. 현 시점에서 사용되는 사회인지 측정 도구들은 국내표집에 맞게 적절히 표준화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표준화된 도구의 신뢰도가 타당도가 바람직한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마음이론 이외에 귀인양식과 얼굴 정동 지각도 아동기 외상 및 외상후 회복과 관련되는지 탐색하는 것도 필요하겠다.

마지막으로, 사회인지를 정상표집을 대상으로 표준화한 마음이론 척도로 측정하였지만, 표집을 구성할 때에 연구 참가자들이 모두 건강하고 정상적인 심리건강을 유지한다고 단언하기 어렵다. 특히 서론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아동기 외상은 심리장애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이는 스트레스 지각에도 추가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참가자들의 심리장애나 그 증상을 측정하지 않아 그 효과를 제거하지 않았으므로, 본 연구의 결과가 건강하고 적응적인 청년들을 대표한다고 보기 어렵다.

## REFERENCES

- Bentler, P.M., & Chou, C. (1987). Practical issues in structural modeling. *Sociological Methods and Research, 16*, 78-117.  
DOI: 10.1177/004912418701600100
- Berking, M., & Wupperman, P. (2012). Emotion regulation and mental health: recent findings, current challenges, and future directions. *Current Opinion in Psychiatry, 25*, 128-134.  
DOI: 10.1097/YCO.0b013e3283503669.
- Carperter, L. L., Carvalho, J. P., Tyrka, A. R., Wier, L. M., Mello, A. F., Mello, M. F., Anderson, G. M., Wilkinson, C. W., & Price, L. H. (2007). Decreased adrenocorticotropic hormone and cortisol responses to stress in healthy adults reporting significant childhood maltreatment. *Biology Psychiatry, 62*, 1080-1087. DOI: 10.1016/j.biopsych.2007.05.002
- Carpenter, L. L., Tyrka, A. R., Ross, N. S., Khoury, L., Anderson, G. M., & Price, L. H. (2009). Effect of childhood emotional abuse and age on cortisol responsivity in adulthood. *Biology Psychiatry, 66*, 69-75. DOI: 10.1016/j.biopsych.2009.02.030.
- Colvert, E., Rutter, M., Kreppner, J., Beckett, C., Castle, J., Groothues, C., Hawkins, A., Stevens, S., & Sonuga-Barke, E. J. (2008). Do theory of mind and executive function deficits underlie the adverse outcomes associated with profound early deprivation?: findings from the English and Romanian adoptees study.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36*, 1057-1068.  
DOI: 10.1007/s10802-008-9232-x. Epub 2008 Apr 22.
- Danese, A., & Baldwin, J. R. (2017). Hidden wounds? Inflammatory links between childhood trauma and psychopathology. *Annual Review of Psychology, 68*, 517-544. DOI: 10.1146/annurev-psych-010416-044208.
- Decker, J. W., Lobbstaël, J., van Wingen, G. A.,

- Kessels, R. P., Amtz, A., & Egger, J. I. (2015). The influence of stress on social cognition in patients with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Psychoneuroendocrinology, 52*, 119-129. DOI: 10.1016/j.psyneuen.2014.11.003.
- Dillon, D. G., Holmes, A. J., Birk, J. L., Brooks, N., Lyons-Ruth, K., & Pizzagalli, D. A. (2009). Childhood adversity is associated with left basal ganglia dysfunction during reward anticipation in adulthood. *Biological Psychiatry, 66*, 206-213. DOI: 10.1016/j.biopsych.2009.02.019.
- Fett, A. K., Viechtbauer, W., Dominguez, M. D., Penn, D. L., van Os, J., & Krabbendam, L. (2011). The relationship between neurocognition and social cognition with functional outcomes in schizophrenia: a meta-analysis. *Neuroscience & Biobehavioral Reviews, 35*, 573-588. DOI: 10.1016/j.neubiorev.2010.07.001
- Fossati, A., Somma, A., Krueger, R. F., Markon, K. E., Borroni, S. (2017). On the relationships between DSM-5 dysfunctional personality traits and social cognition deficits: A study in a sample of consecutively admitted Italian psychotherapy patients. *Clinical Psychology & Psychotherapy, 24*, 1421-1434. DOI: 10.1002/cpp.2091
- Glenthøj, L. B., Fagerlund, B., Hjorthøj, C., Jepsen, J. R. M., Bak, N., Kristensen, T. D., Wenneberg, C., Krakauer, K., Roberts, D. L., & Nordentoft, M. (2016). Social cognition in patients at ultra-high risk for psychosis: What is the relation to social skills and functioning? *Schizophrenia Research: Cognition, 8*, 21-27. DOI: 10.1016/j.scog.2016.06.004.
- Green, M. F., Penn, D. L., Bentall, R., Carpenter, W. T., Gaebel, W., Gur, R. C., Kring, A. M., Park, S., & Silverstein, S. M. (2008). Social cognition in schizophrenia: an NIMH workshop on definitions, assessment, and research opportunities. *Schizophrenia Bulletin, 34*, 1211-1120. DOI: 10.1093/schbul/sbm145.
- Gunnar, M., & Quevedo, K. (2007). The neurobiology of stress and development. *Annual Review of Psychology, 58*, 145-173. DOI: 10.1146/annurev.psych.58.110405.085605
- Harrington, R. (2016). *Stress, Health and Well-Being: Thriving in the 21st Century*. New York, McGraw-Hill, Inc.
- Heim, C., Mletzko, T., Purselle, D., Musselman, D. L., & Nemeroff, C. B. (2008). The dexamethasone/corticotropin-releasing factor test in men with major depression: role of childhood trauma. *Biology Psychiatry, 63*, 398-405. DOI: 10.1016/j.biopsych.2007.07.002
- Heim, C., Newport, D. J., Heit, S., Graham, Y. P., Wilcox, M., Bonsall, R., Miller, A. H., & Nemeroff, C. B. (2000). Pituitary-adrenal and autonomic responses to stress in women after sexual and physical abuse in childhood. *JAMA, 284*, 592-597. DOI: 10.1001/jama.284.5.592 6.
- Heim, C., Newport, D. J., Wagner, D., Wilcox, M. M., Miller, A. H., & Nemeroff, C. B. (2002). The role of early adverse experience and adulthood stress in the prediction of neuroendocrine stress reactivity in women: a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Depression Anxiety, 15*, 117-125. DOI: 10.1002/da.10015
- Kim, E. K. (2008). *The recognition of facial emotion and attributional bias influenced on depression and aggression in abused children*. Hanyang University Doctorial Dissertation.
- Koh, K. B., Park, J. K., & Kim, C. H. (2000). Development of the Stress Response Inventory. *Journal of Korean Neuropsychiatry Association, 39*, 201-211.
- Kwon, J. H., Chun, J. S., & Choi, K. H. (2003). Validation study of the Social Behavior Sequencing Task: The assessment of the social-cognitive ability of schizophrenics.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2*, 629-639.
- Muscattell, K. A., & Eisenberger, N. I. (2012). A Social Neuroscience Perspective on Stress and Health. *Social Personality and Psychology Compass, 6*, 890-904. DOI: 10.1111/j.1751-9004.2012.00467
- Ortigo, K. M., Westen, D., Defife, J. A., & Bradley, B. (2013). Attachment, social cognition, and posttraumatic stress symptoms in a traumatized, urban population: evidence for the mediating role of object relations. *Journal of Traumatic Stress, 26*, 361-368. DOI: 10.1002/jts.21815
- Ostrum, T. M. (1984). The sovereignty of social

- cognition. In R. S. Wyer & T. K. Srull(Eds), *Handbook of Social Cognition, Vol 1*. Hillsdale, N. J.: Erlbaum. DOI: 10.1037/0096-1523.32.1.73.
- Palmier-Claus, J., Berry, K., Darrell-Berry, H., Emsley, R., Parker, S., Drake, R., & Bucci, S. (2016). Childhood adversity and social functioning in psychosis: Exploring clinical and cognitive mediators. *Psychiatry Research, 238*, 25-32.  
DOI: 10.1016/j.psychres.2016.02.004.
- Pears, K. C., & Fisher, P. A. (2005). Developmental, cognitive, and neuropsychological functioning in preschool-aged foster children: Associations with prior maltreatment and placement history. *Journal of Developmental and Behavioral Pediatrics, 26*, 112-122. DOI: 10.1097/00004703?200504000?00006
- Penn, D. L., Corrigan, P. W., Bentall, R. P., & Racenstein, J. M. (1997). Newman L. Social cognition in schizophrenia. *Psychological Bulletin, 121*, 114-132.
- Picken, A. L., Berry, K., Tarrier, N., & Barrowclough, C. (2010). Traumatic events,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attachment style, and working alliance in a sample of people with psychosis. *The Journal of Nervous and Mental Disease, 198*, 775-787.  
DOI: 10.1097/NMD.0b013e3181f4b163.
- Sachs-Ericsson, N., Verona, E., Joiner, T., & Preacher, K. J. (2006). Parental verbal abuse and the mediating role of self-criticism in adult internalizing disorders. *Journal of Affective Disorders, 93*, 71-78.  
DOI: 10.1016/j.jad.2006.02.014
- Salzinger, S., Kaplan, S., Pelcovitz, D., Samit, D., & Krieger, R. (1984). Parent and teacher assessment of children's behavior in child maltreating families.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Psychiatry, 23*, 458-464.  
DOI: 10.1016/j.biopsych.2006.07.016
- Sanchez, M. M., McCormack, K. M., & Howell, B. R. (2015). Social buffering of stress responses in nonhuman primates: Maternal regulation of the development of emotional regulatory brain circuits. *Social Neuroscience, 10*, 512-526.  
DOI: 10.1080/17470919.2015.1087426
- Shipman, K., Zeman, J., Penza, S., & Champion, K. (2000). Emotion management skills in sexually maltreated and nonmaltreated girls: a developmental psychopathology perspective. *Developmental Psychopathology, 12*, 47-62.  
DOI: 10.1017/S0954579400001036.
- Song, D., & Shin, S. (2011). Social Cognition as a Moderator Between Psychopathology and Quality of Life in Schizophrenia. *Korean Journal of Schizophrenia Research, 14*, 96-104.
- Suzuki, A., Poon, L., Papadopoulos, A. S., Kumari, V., & Cleare, A. J. (2014). Long term effects of childhood trauma on cortisol stress reactivity in adulthood and relationship to the occurrence of depression. *Psychoneuroendocrinology, 50*, 289-299.  
DOI: 10.1016/j.psyneuen.2014.09.007
- Ullman, S. E., & Fillipas, H. H. (2005). Ethnicity and child sexual abuse experiences of female college students. *Journal of Child Sexual Abuse, 14*, 67-89.  
DOI: 10.1300/J070v14n03\_04
- van Overwalle, F. (2009). Social cognition and the brain: a meta-analysis. *Human Brain Mapping, 30*, 829-858. DOI: 10.3758/s13415-014-0284-9
- Weltz, S. M., Armeli, S., Ford, J. D., & Tennen, H. (2016). A daily process examination of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hood trauma and stress-reactivity. *Child Abuse and Neglect, 60*, 1-9.  
DOI: 10.3758/s13415-014-0284-9
- Wolfe, D. A., & Moske, M. D. (1983). Behavioral comparisons of children from abusive and distressed familie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1*, 702-708.

원고접수: 2018.07.10

수정접수: 2018.08.24

게재확정: 2018.09.14